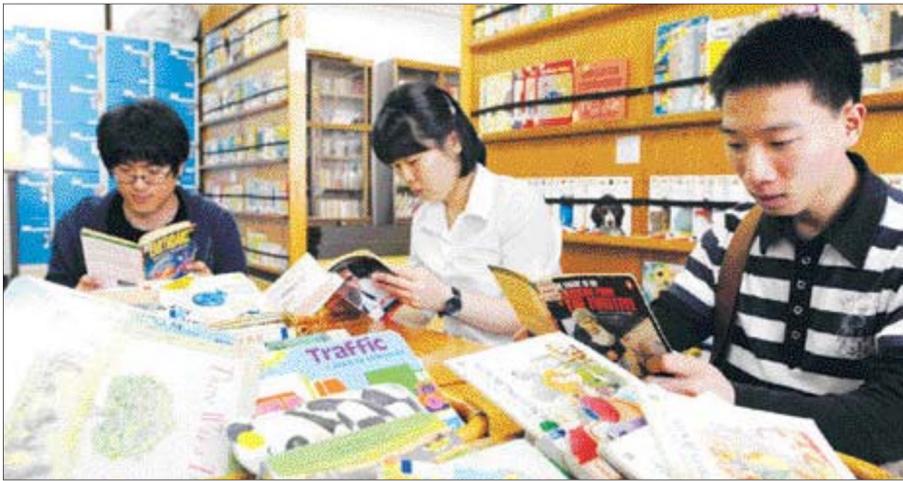


■ 도심속 '외국어 도서관' 인기



15일 오후 광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스토리북센터에서 학생들이 영어 소설책을 읽고 있다. 센터는 영어 실력에 따라 책을 골라 볼 수 있도록 수준별로 원서를 비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어·불어 원서 빌려 보세요”

새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이 사실상 백지화 됐지만 영어열풍은 여전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영어 동화책이나 영어, 불어 등 외국원서를 통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서점에 나와있는 외국원서의 경우 종류도 다양하지 않는데 가격도 비싼 편이어서 외국서적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다.

새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이 사실상 백지화 됐지만 영어열풍은 여전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영어 동화책이나 영어, 불어 등 외국원서를 통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서점에 나와있는 외국원서의 경우 종류도 다양하지 않는데 가격도 비싼 편이어서 외국서적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같은 고민을 해결해주는 도심속 '외국어 도서관'이 속속 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다양한 종류의 외국원서를 비치해 외국어 공부에 물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Library Name and Phone Number. Includes locations like 광주대 스토리북센터, 무등도서관,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 프랑스로화원,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소.

광주대 스토리북센터 062-670-2211
무등도서관 아메리칸 코너 062-251-4465
광주국제교류센터 영어도서관 062-226-1050
광주 프랑스로화원 미디어 도서관 062-527-2500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소 062-530-3288

광주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내 스토리북센터에는 영어 동화책 및 각종 성인 소설 등을 난이도에 따라 배치, 이용자가 자신의 실력에 맞춰 책을 선택해 볼 수 있다.

미국 현지에서 직접 구입한 동화책 2천 500권을 비롯해 소설책 등 모두 3천여권의 원서를 보유하고 있다. 재학생은 물론 외국어교육원 수강생 등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관의 대출 불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고 싶다면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일본문화연구소(이하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 2004년 10월 문을 연 센터는 기증받은 도서 3천여권의 일본서적이 구비돼 있다. 홈페이지(http://altair.chonnam.ac.kr/~jcss)에서 도서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연구논문, 개인 전집류의 책들이 많다. 대출 가능. 개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광주 북구 무등도서관 2층 아메리칸 코너는 정부간행물, 잡지 등 다양한 미국 서적 1천900여권을 갖추고 있다. 주로 영

권이 있다. 100% 기증을 받다 보니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주로 고전, 전기, 소설 종류가 많다.

이밖에 불어나 일본어 관련 서적은 문

‘소리노리’ 남도소리 상설무대 16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이하 소리노리)가 광주문화예회관이 기획한 ‘남도소리 상설무대’에서 공연을 갖는다. 16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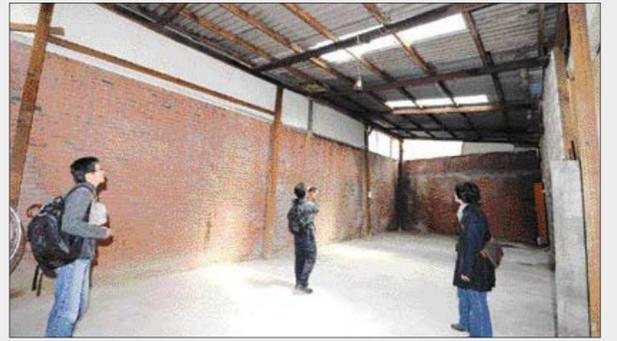
‘소통 6-아~따 좋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소리노리’는 흥겨운 갈놀이, ‘정화굿’, ‘아리랑이 담긴 북소리’, ‘젓대소리’ ‘한량무’, ‘북춤’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김도순·김영화·김은하·박정화·손희생·설상수씨 등과 가수 정용주씨가 함께 무대를 꾸미며 흥겨운 판곡으로 공연을 마감한다. 1996년 창단한 ‘소리노리’는 광주김치축제, 서울연등축제 등 다양한 축제

에 참가해 왔다. 티켓가격 1만원, 7천원.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가들 붓 대신 망치·톱 들다

대인시장 인근에 미술 대안 공간 조성...전시실·세미나실 등 5월 오픈

광주지역 작가들이 붓 대신 망치와 톱을 들었다.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미술 대안 공간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 대인시장 인근의 1층 건물(165㎡)이 바로 그곳이다. 이곳은 기존 신발 가게가 지난 1998년 문을 닫은 뒤 10여년째 방치됐던 버려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역 작가들이 이곳을 전시장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대안 공간을 꾸미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작가들이 오는 5월 광주 동구 계림동에 문을 여는 대안 공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위정락기자 jrwi@kwangju.co.kr

지난해 6월부터 윤남용, 조광삼, 신호윤씨 등 10여명의 지역 작가와 광주현대화랑 박성현 큐레이터 등이 1천500여만원의 사비를 모아 이곳을 임대,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작가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공사에 참여했다. 오는 5월 오픈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며, 운영위원회 등을 모집해 공간 명칭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안공간은 전시장과 문화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전시실은 경제적인 어려

움으로 전시회를 열지 못했던 젊은 작가들에게 무료나 저가로 대여된다.

공간으로 꾸미는 지역미술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문화공간은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지역 미술의 진보적 담론을 형성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의 골목길, 대인시장 등을 미술

박성현씨는 “이공간은 젊은 작가들이 모여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어어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올 광주 정율성 음악제 대구서도 공연

음악제 주제도 공모

오는 10월 23~26일까지 광주문화예회관에서 열리는 제 4회 광주 정율성 국제음악제가 서구적인 붓 조성에 나선다.

10월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오페라를 선보이는 아시아 유일의 오페라 축제인 2008 대구국제오페라페스티벌에도 참여한다. 중국 운남오페라단은 오는 10월 22일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를 대구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올린다.

시립미술관 어린이 미술치료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문화센터는 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급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한다.

미술치료는 일반 학급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특수학급 어린이들이 그림이나 조소 등의 미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안정감을 되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광주 YMCA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미술치료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제초교, 오정초교, 동산초교, 풍향초교, 오치초교 등 7개 학교 어린이 34명이 함께 한다. 프로그램은 4월~1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어린이문화센터에서 진행되며 미술체험과 미술치료를 나눠 진행된다. 문의 062-510-014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대구 지역에서 열리는 대구 국제음악페스티벌에 참가, 정율성 음악 알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오는 6월 26일 열리는 대구국제현대음악제에서는 정율성의 작품 선율을 주제로 중국·대만·홍콩 지역의 작곡가 7명에게 의뢰한 실내악곡을 연주한다. 연주는 박문경씨가 이끄는 스피코피아상블리가 맡을 예정.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theaters. Includes 'Happy Time 영화안내' and lists for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무등극장', and '제일 시네마'. Each theater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